

광주시청 김국영 100m 대회신 우승 김덕현 멀리뛰기 금메달 '부활의 도약'

고성서 열린 전국 육상대회 한정미 여자 400m 은메달

광주시청 김덕현과 김국영이 2021 고성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정미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덕현은 7일 고성에서 열린 이 대회 남자일반부 멀리뛰기에서 7m69를 뛰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020예천 전국 대학·일반 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에서 동메달(7m10)이 마지막 실적이었던 김덕현은 이후 부상으로 재출에만 몰두해왔다. 그리고 올해 첫 대회인 고성대회에서 부활을 알렸

다. 김덕현은 지난해 국가대표를 반납하고 국내 대회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며 한국 도약 종목의 간판임을 확인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덕현이 부상에서 회복해 존재감을 입증했다.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힘을 합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영은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19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예선에서 10초17, 준결승에서 10초08을 뛰어 한국신기록(10초07)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준결승 10초08 기록은 바람이 기준 이상으로 나와 아쉽게도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 진행된 결승에서는 다리 통증으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10초1대의 기록에 만족해야 했다. 김 감독은 "김국영이 준결승에서 10초08을 기록해 한국신기록 수립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결승까지 하루에 모두 소화하면서 기록 달성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80%의 몸상태에서도 10초1대의 기록을 낸 만큼 잘 준비해서 다음대회에서 기록을 노리겠다"고 말했다. 한정미는 여자일반부 400m 결승에서 57초29로 결승선을 통과, 56초71을 기록한 김지은(전북개발공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다. 김덕현은 지난해 국가대표를 반납하고 국내 대회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며 한국 도약 종목의 간판임을 확인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덕현이 부상에서 회복해 존재감을 입증했다.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힘을 합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영은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19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예선에서 10초17, 준결승에서 10초08을 뛰어 한국신기록(10초07)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준결승 10초08 기록은 바람이 기준 이상으로 나와 아쉽게도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 진행된 결승에서는 다리 통증으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10초1대의 기록에 만족해야 했다. 김 감독은 "김국영이 준결승에서 10초08을 기록해 한국신기록 수립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결승까지 하루에 모두 소화하면서 기록 달성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80%의 몸상태에서도 10초1대의 기록을 낸 만큼 잘 준비해서 다음대회에서 기록을 노리겠다"고 말했다. 한정미는 여자일반부 400m 결승에서 57초29로 결승선을 통과, 56초71을 기록한 김지은(전북개발공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국영



김덕현

올림픽 파트너 된 단짝 "셔틀콕 도쿄 낭보 전하겠다"

화순서 올림픽 금메달 담금질하는 배드민턴 여자복식 이소희-신승찬

화순군 하니문화스포츠센터(이하 하니움)에서 도쿄 올림픽 꿈이 영글고 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선수단 46명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하니움에서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배드민턴 여자복식 콤비인 이소희와 신승찬(이상 27·인천국제공항)은 14년 지기 친구 사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주니어 대표팀에서 만나 동갑내기 친구가 된 이들은 현 성인 대표팀에서 기동 역할을 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중 가장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언니들과 짝을 이뤘다. 이소희는 장예나(32·김천시청)와, 신승찬은 정경은(31·김천시청)과 호흡을 맞췄다. 정경은-신승찬은 리우올림픽 동메달 쾌거를 이뤘고, 이소희-장예나는 2017년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험을 쌓고 실력을 끌어올린 이소희와 신승찬은 2017년 말 다시 파트너로 뭉치면서 도쿄올림픽에 함께 도전하게 됐다. 주니어 시절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세계주

중학생 때부터 호흡...세계 4위 주니어선수권 2년 연속 우승도 "후회 안되게 철저히 준비할 것"

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복식 금메달을 휩쓴 철떡공함을 올림픽 무대에서 펼치게 된 것이다. 이소희와 신승찬은 "올림픽에 같이 나가는 것은 처음이어서 뜻깊다"며 함께 올림픽 무대에 서는 어릴 때의 꿈을 이뤄 기쁘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만나면 가장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물음에 신승찬은 "무조건 소희에게 제일 고맙다"고 답했고, 이소희도 "저도 제일 옆에서 고생한 승찬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올림픽에 나가는 만큼 자신감이 있다. 신승찬은 "리우에서는 언니들이 우리를 끌어주는 부분이 있었다. 언니들 덕분에 많이 성장했고, 배웠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지금은 서로를 끌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희는 "리우에서는 우리가 어렸고 경험이 없



올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파이널 여자복식에서 우승한 이소희(왼쪽)와 신승찬. /연합뉴스

어서 언니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갔다"고 돌아보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도 나름대로 경험이 쌓였다. 둘이 같이 잘 지켜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육상 신성' 리처드슨 올림픽 출전 끝내 불발

마리화나가 발목 잡아

'라이징 스타' 사 캐리 리처드슨(21·미국·사진)의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이 끝내 불발됐다. 미국육상연맹은 7일(한국시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대표 선수 130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리처드슨의 이름은 여자 100m는 물론이고, 400m 계주 예비 명단에 없었다.



미국육상연맹은 "리처드슨이 처한 상황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리처드슨은 6월 20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미국 육상 대표 선발전 여자 100m 결선에서 10초86으로 우승하며 상위 3명이 받는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경기 뒤 리처드슨은 "어머니의 부고를 지난주에 받았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그런데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올림픽인의 꿈도 이뤘다. 복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리처드슨은 감정을 추스르고 "도쿄에서 만나요"라고 외쳤다. 그러나 올림픽 선발전이 끝난 뒤, 리처드슨은 도핑 테스트를 받았고 소변 샘플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됐다. 미국 도핑방지위원회는 리처드슨에게 '선수 자격 정지 한 달'의 징계를 내렸다. 리처드슨은 미국 NBC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미국 육상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오래 떨어져 산) 어머니의 부고를 받았다"며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그런 선택(마리화나 복용)을 했다"고 고백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마리화나 복용은 합법이다. 그러나 미국 도핑방지위원회는 '대회 기간 내 혹은 대회 직전 의료용 마리화나를 복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국 육상연맹은 리처드슨의 올림픽 선발전 100m 1위 기록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학생선수·일반학생 함께 스포츠 즐겨요

볼링·배구·배드민턴 등 구례·장성서 한마당 행사


학생 전문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스포츠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행사가 지난 3일부터 구례와 장성 두 권역에서 치러지고 있다. 구례에서는 7일 중등부 결승이 진행돼 오는 14일 고등부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으며, 장성에서는 오는 19-20일 예선을 시작으로 24일 중·고등부 결승이 예정돼 있다. 이 대회는 전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확보한 2021년 청소년스포츠한마당대회 사업비(8400여만원)를 토대로 치러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볼링 외에 배구, 배드민턴 3개 종목의 경

기가 예정돼 있다. 이 대회는 여느 체육행사와 달리 학교나 스포츠클럽 등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선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스포츠교실, 공공스포츠클럽, 학교밖 청소년(지역별 공동캠프센터 연계) 등 누구나 출전할 수 있다. 배구와 배드민턴은 오는 11월초 예선을 시작으로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가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되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즐기는데 아쉬움이 많았다"며 "올해는 각 종목 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대회 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근 구례 B&O볼링장에서 열린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행사에서 선수들이 경기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블랙 위도우
2관	블랙 위도우
3관	발신제한
4관	블랙 위도우, 이번엔 잘 되겠지
5관	블랙 위도우,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6관	블랙 위도우
9관	블랙 위도우,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7관	씨네커를 발신제한, 미드나이트 크루엘라, 콰이어트 플레이스 2
8관	씨네커를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
김민지 첼로 리사이틀
일시: 2021. 07. 13.(화)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